**[더 나은 일상을 위한 한 걸음]**

2021년은 코로나19로 우리 주변에서 많은 환경의 변화를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편하게 밥을 먹거나 함께 여행을 떠났던 지난 과거들이 지금은 감히 꿈꾸기 힘든 오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접종이 상반기부터 시작되었고, 정부 접종계획에 따라 올 6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한 주간의 짧은 휴가를 받게 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길어진 집 생활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고, 백신을 맞은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방접종센터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백신을 접종받게 된 것은 각 단계별로 접종센터 근무자와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안내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저도 백신을 맞는 주민들에게 제가 받았던 도움을 나눠드리고 싶어 연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휴가동안 5번의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 중 오전에는 평균 1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백신을 맞기 위해 접종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휴가철과 겹쳐서인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접종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접종자 대상

확인부터 접종 후 이상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15분 대기절차까지 체계적 접종절차를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에 저도 예방접종센터에서 체온측정, 예진 안내와 이상상태 관리 등 이동 동선에 따라 다양한 단계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학생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예진표 작성 시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작성 방법을 옆에서 알려주시거나 이동 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는 등 봉사자분들이 주변에서 세세하게 도움을 주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이에 비록 제가 맡은 봉사활동이 체온측정이나 이상상태 관찰, 번호표 배부 등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었지만, 간혹 봉사활동과 관련해 질문을 하실 때 아는 범위 안에서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담당자에게 안내하려 노력한 기억이 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2차례 코로나 백신을 원활하게 맞을 수 있었던 것도 주변에서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습니다. 특히, 지난 접종 당시 직접 어디로 이동해야 하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예진표 작성에 관해 직접 도움을 받기도 했고, 이상상태 15분을 기다리는데 있어 주변에서 안내를 해주셨던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노력한 의료진분들과 행정직원분들의 노력에 자원봉

사자들의 봉사가 있었기에 빠르게 더 나은 일상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라는 시기적 특성으로 생겨난 봉사활동인 만큼, 의료지원이라는 점에서 여태까지 했었던 자원봉사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 예방접종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접종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은 더 큰 의미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고, 코로나19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백신접종에 보탬이 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하면서 접종자들에게 안내하면서 도움을 주고,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편의를 느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의 노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음에도 기회가 닿을 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